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OECD, 한국 건강보험 재정 우려

- OECD 한국담당관은 ‘201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’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의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.
 - 의료·보건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의료비가 OECD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함과 동시에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출 통제 없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함.
 - 1997~2007년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의료비 증가율은 9.7%로 OECD 평균인 4.1%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.
 - 2050년 노인인구 비중이 70% 이상으로 전망되어 OECD 중 두 번째 고령국가로 될 것으로 예상됨.

- OECD는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포괄 수가제 확대, 의약품 지출 비용 감소, 고령인구에 대한 건강 정책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함.
 -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가 7천건 이상으로 OECD 평균인 2천500건의 3배에 육박함에 따라 포괄 수가제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.
 - 의약품 지출 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복제약 가격 인하, 동일성분 약에 대한 보험금 상한 설정, 일반의약품(OTC)의 약국 외 판매, 처방당 약제 수에 따른 비용 차등의 방안을 제기함.
 - 고령인구에 대한 건강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, 저렴한 재가 서비스 운용, 담배세 인상, 일반의원 수 확대 등을 주문함.
 - 또한,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법정 본인 부담 상한 인하,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고, 외과 등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보험료 인상,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및 병원 간 인수·합병 허용, 의대 정원 확대 등도 조언함.

(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등,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등, 6/18)